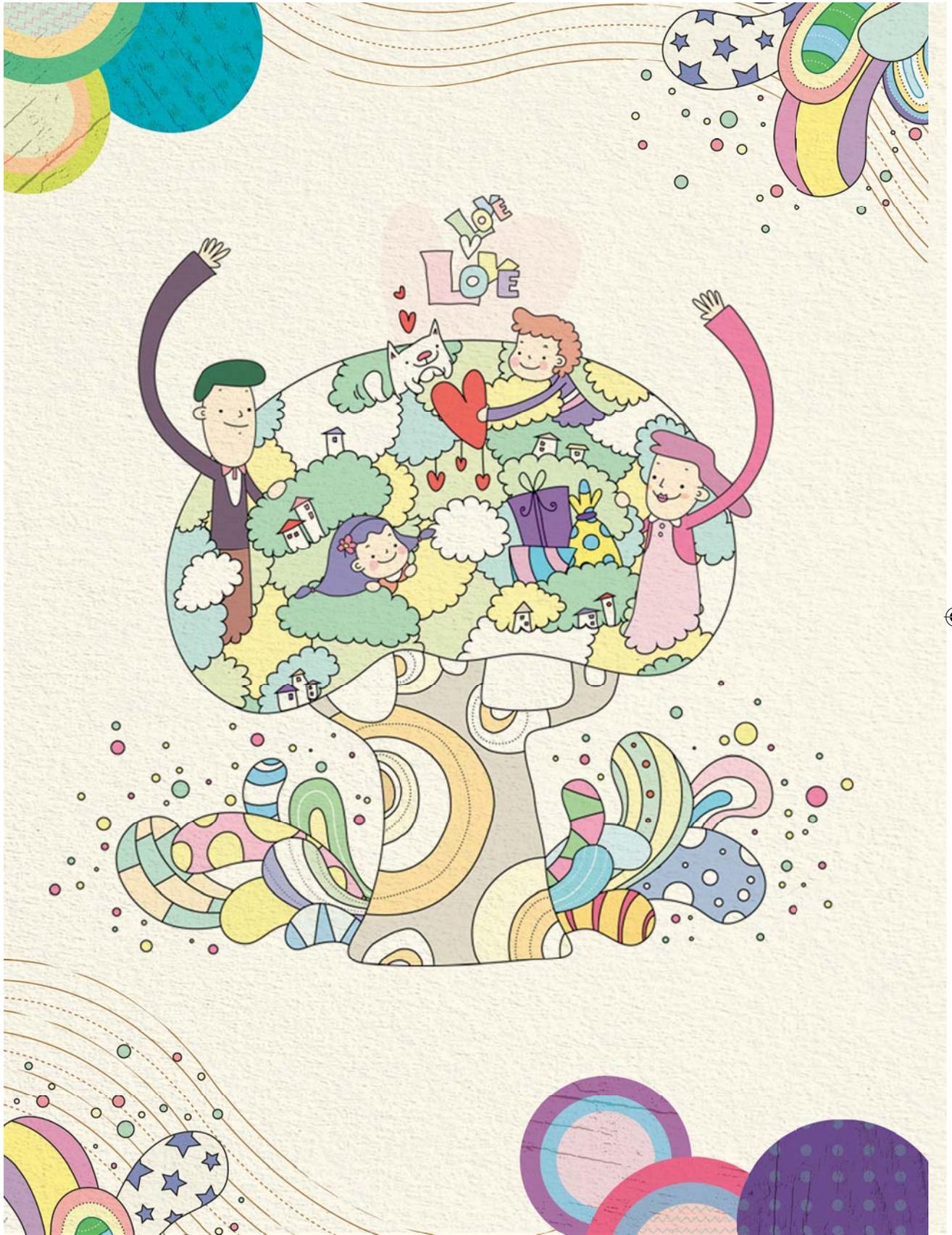




HOW. TO. 주일학교 '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38\_worldview





#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

유경상 (CTC 청소년세계관교육센터 대표)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점점 더 많은 학자, 목회자, 교사, 부모, 청년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 전문분야, 직업, 가정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간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특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왜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기독교 세계관을 책이나 강의를 통해 접하게 되는 교양 정도로, 또는 유행이 지난 이론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도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계속되어야 할 것인데, 삶의 변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돕는 가이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WHAT) 혹은 “왜 중요한가?”(WHY)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이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적용할 것인가?”(HOW)에 대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하면서 쉽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구체적으로 가이드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온전히 이해시키고 그에 따라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정착시키고 활성화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이를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들에게 가르칠 기독교 세계관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기독교학교와 홈스쿨링의 역사가 오래된 북미주, 특히 Summit Ministry 같은 기독교 세계관 교육단체에는 초중고 학생들을 비롯한 대학생들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들이 이미 나와 있다. 하지만 아무리 콘텐츠가 좋아도 그것을 그대로 들여와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독교 세계관의 원리와 교육의 큰 짜임은 동일할지 몰라도 미국과 한국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에게 맞는 체계적인 기독교 세계관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





또 교사들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아이들의 생각과 삶의 변화를 돕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목표라면, 교사들이 먼저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콘텐츠 개발보다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청소년들을 가르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요컨대 콘텐츠 개발과 기독교 세계관으로 준비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부모가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 많은 부모들이 교사나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위탁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책임자는 교사가 아니라 부모다. 특히 기독교 세계관 교육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며, 삶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부모와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부모의 생각을 공유하게 된다.



다시 말해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훈련하고 이끌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은 다름 아닌 부모이다. 부모가 자녀 교육을 주도하고 교사와 사역자들이 그들을 지원하는 구조로 교육이 진행될 때 삶을 변화시키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즉, 입시 사교육이 아닌 자녀들의 신앙과 인성, 기독교 세계관이 자라는 것에 우선 순위와 가치를 둔 부모들이 주도하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의 상황에 맞게 기독교 세계관이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해결해 나가게 하려면 기독교 세계관을 잘 이해시킬 뿐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기독교 세계관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기독교 세계관 관련 도서들은 어른을 대상으로 하였고, 생소한 학문적 용어들도 많아 자칫 기독교 세계관을 삶이 아닌 어려운 이론으로 오해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상에 맞는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에게는 '세계관'이라는 용어 대신 '생각'을 사용하고 '기독교 세계관' 대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기' 또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기'로 바꾸어 설명하는 것이다. 또 '창조, 타락, 구속'의 개념을 각각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바꾸어 설명하는 것이다. 물론 세계관과 생각은 엄밀하게 따져볼 때 의미상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친숙하게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라면, 그들에게 친숙한 단어인 '생각'을 통해 세계관의 의미와 중요성을 전달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클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시킬 뿐 아니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문제들과 고민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해 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게임, 공부, 미디어 생활, 친구 관계, 성, 이성 교제 등 아이들의 주요 관심사와 관련된 생각이나 고민을 들어주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교육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결국 신앙과 삶이 연결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적극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교회마다 주말 교회학교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실제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은 많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주말 교회학교의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주말 교회학교를 정의하자면 시간적으로는 주일 시간 외에 금요일 저녁으로부터 시작하여 토요일 시간을 활용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그것은 내용적으로 예배와 공과 공부로 이루어지는 주일학교와는 다르며, 단순히 주중의 학습을 보충해 주는 학원 개념도 아니다. 임태규는 주말 교회학교를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생각과 삶에서 벗어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된 학교”라고 정의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목표이다. 즉, 주말 교회학교는 예배와 성경공부 중심의 신앙과 가정과 학교공부 중심의 삶을 연결시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가장 적합한 형태가 될 수 있다.

부모가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맞춰 개발된 기독교 세계관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말 교회학교가 운영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의 생각과 삶의 변화를 돕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실질적인 모델이 아닐까 생각한다.

CTC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 학술동역회 산하 기관)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사명을 두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함을 정리하게 되었다. 이에 어린이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재를 개발하였고 부모들이 교사가 되어 운영하는 어린이세계관학교를 거룩한 빛광성교회(담임목사 정성진)와 평내교회(담임목사 권성호)에서 주말 교회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사명과 비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길,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활성화 되어 수많은 21세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양성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CTC 어린이세계관학교 교육과정(3년 6학기 과정)**

학기	학기별 주제
1학기	생각 코칭 :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
2학기	성품 코칭 :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기
3학기	미디어 코칭 : 미디어 시대, 예수님 제자되기
4학기	드림 코칭 :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꾸기
5학기	학습 코칭 :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기
6학기	리더십 코칭 :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아가기

**CTC 프로그램 내용 및 사역 문의**

- Tel. 010-2792-5691 (안성희 팀장)  
010-7301-7178 (한부의 팀장)
- e-mail ctc2007@hanmail.net
- 커뮤니티 <http://cafe.naver.com/ctc21>



**유경상**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산하 청소년세계관교육기관인 크리스천생킹센터(CHRISTIAN THINKING CENTER) 대표로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기독교세계관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를 제공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VIEW(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전공했고,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일산에 있는 센터에서 어린이·청소년 세계관아카데미를,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어린이세계관학교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세아연합신학교에서 기독교세계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